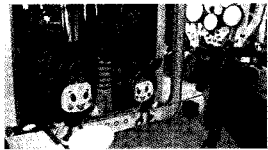


NFRI NEWS

2009 대한민국 과학축전 전시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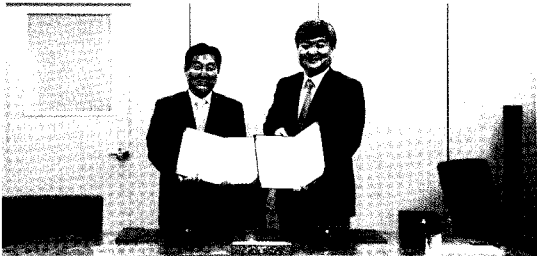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국내 최대의 과학문화축제 '대한민국 과학축전'이 8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었다. '과학과 창의가 만드는 녹색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 '녹색 에너지의 미래 비전, 핵융합'이라는 주제로 참가한 국가핵융합연구소는 플라즈마의 원리체험, 자기장 실험 등 핵융합 기본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퀴즈대회 이벤트, 퍼즐 맞추기, 포토존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여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ABC 상사와 SiC나노분말 제조공정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협약 체결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에이비씨상사(주)간 "SiC 나노분말 연구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NFRI 국가핵융합연구소 날짜: 2009년 6월 22일(월) ABC NANOTECH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지난 6월 22일 에이비씨상사(주) 및 에이비씨 나노텍(주)과 탄화규소(이하 SiC) 나노분말 제조공정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핵융합(연)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과정에서 얻은 파생기술 중의 하나인 SiC나노분말 제조공정의 상용화 타당성을 분석하고 상용화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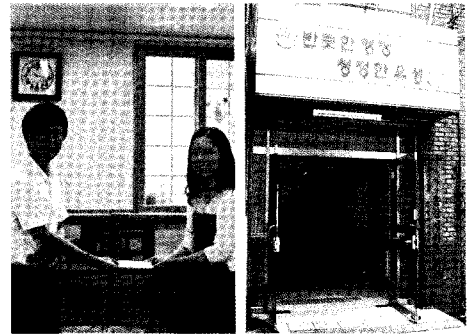
일본 NIFS와 연구장비 무상대여에 관한 협력약정 체결

국가핵융합연구소는 KSTAR의 부대장치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국립핵융합과학연구소(NIFS)와 일본이 개발한 핵융합 진단장치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연구장비 무상대여에 관한 협력약정을 지난 7월 3일 체결하였다. 핵융합(연)은 분광시스템(Polychromator) 등 핵융합장치 내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밀도와 전자온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진단장치를 무상대여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만원의 행복 성금 전달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원의 행복' 프로그램의 모금액을 지난 8월 7일 송강사회복지관에 전달하였다. '만원의 행복'은 연구소 직원들의 모금액(1만원)을 모으고 조성된 기금만큼 연구소가 추가지원하여 그 총액을 소외 계층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이와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며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 분야에서 모범 연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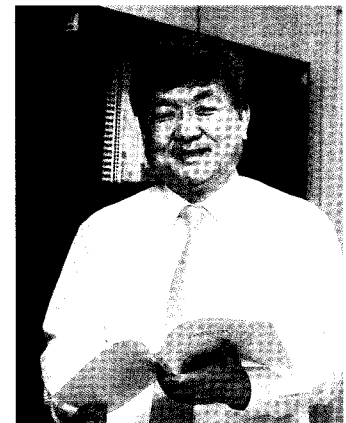
대덕고등학교와 핵융합 교육과정 개설 위한 협약 체결



지난 8월 20일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과학문화 확산 및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덕고등학교와 상호 협력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공계 전공예정인 일반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핵융합과 플라즈마 물리 등 연구소의 중점 연구분야에 관한 과학심화수업을 제공하는 '퓨전스쿨(Fusion School)'의 시험 운영을 대덕고에서 진행하게 된다. 핵융합(연)의 '퓨전스쿨'은 대덕고를 시작으로 교육과정 체계화 과정을 거쳐 대전지역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참여자 및 사업규모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미국 GA와 KSTAR 가열장치 무상대여 협력약정 체결

한-미 핵융합 연구협력의 일환으로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 GA)에서 보유한 가열장치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연구장비 무상대여 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무상대여 받게 되는 110GHz 사이로트론(Gyrotron)은 핵융합장치 내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며 전자를 가열하는 장치로 KSTAR의 110GHz 전이온화 ECH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예정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의 핵융합 시설인 DIII-D와 핵융합(연)의 KSTAR 사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핵융합연구소장 이경수 박사, 미국 핵융합협회 리더십어워드 수상

국가핵융합연구소장 이경수 박사가 미국 핵융합 에너지협회의(Fusion Power Associates, FPA)가 수여하는 FPA 리더십어워드(Leadership Award)의 2009년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리더십어워드'는 FPA가 1980년부터 핵융합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연구자에게 매년 1~2명씩 수여해 온 상으로, 2008년까지 존 홀드런(John Holdren)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특별보좌관을 포함하여 세계 핵융합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 51명이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결정은 이경수 소장이 KSTA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한국의 적극적인 ITER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국제핵융합 연구평의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데 대한 높은 평가로 이루어졌다.

